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터키

Republic of Turkey

2018년8월29일 | 선임조사역(G2) 변광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재평가 관련 현안 검토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84천 km <sup>2</sup> 	<b>인구</b> 82백만 명 (2018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제 	<b>대외정책</b> 친서방·친아랍 균형외교 
<b>GDP</b> 7,602억 달러 (2018기준) 	<b>1인당GDP</b> 9,286달러 (2018기준) 	<b>통화단위</b> 리라 (Turkish Lira) 	<b>환율(U\$기준)</b> 4.91 (2018.7월말)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82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의원내각제의 총리로서 집권한 에르도안은 총리 4선을 금지하는 당시 헌법에 따라 2014년 8월 대통령에 출마하여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실권행사)이 되고, 2017년 4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개헌하면서 2018년 6월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최장 2033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한 상황**
-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PKK)과의 무력충돌,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유입과 IS 테러 등으로 2017년까지 치안이 불안하였으나, 2018년부터 안정세를 보임
-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약 50%를 차지하여 **대외무역에 있어 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교역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과 이란 등 동아시아와 중동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건 국별신용도 평가는 2018년 2월 정기평가 이후 발생한 미국의 터키에 대한 금융제재와 관세 인상 등 경제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터키 리라화 환율이 2018년 8월 한때 미 달러당 7.24리라 까지 상승하는 등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국별신용등급의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86년), 투자보장협정 ('94년), 섬유협정('97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13년), 사회보장협정('15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	6,249,000	5,385,000	6,154,872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입	790,000	742,000	781,802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총투자기준)** 152건, 2,156,156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5.2	6.1	3.2	5.1	4.4
소비자물가상승률	8.9	7.7	7.8	10.9	15.4
재정수지/GDP	-1.4	-1.3	-2.3	-3.2	-3.8

자료: IMF WEO, EIU

2016년 쿠데타 시도로 경제성장이 위축(3.3%)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2017년 회복(성장률 7.3%)하였고, 2018년은 3~4%의 완만한 성장 예상

- 터키 공화국의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맞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이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국외 차입 혹은 투자유치를 활용한 것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보스퍼러스 해협의 정체를 풀기 위한 대운하건설(약 U\$200억), 이스탄불 해저 3층 터널(약 U\$35억), 이즈미르 베이크로싱(약 U\$30억) 등 인프라 프로젝트 예상소요 자금규모는 약 U\$1,000억

\*\* 소비자물가상승률 15.4%(18년 6월말 기준)

2018년 터키 체류 미국인 목사 브런슨의 석방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으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주요 수출품(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 상황 직면

- 터키 리라화 환율은 8월 한때 미 달러당 7.24리라까지 상승하였고, 미국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인상하여 각각 50%와 20%의 관세율 부과하는 등 실물 경제 위기상황 직면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43,597	-32,118	-32,606	-47,100	-49,146
경상수지/GDP	-4.7	-3.7	-3.8	-4.6	-6.5
상 품 수 지	-63,597	-48,114	-40,859	-58,956	-65,796
상 품 수 출	168,926	151,970	150,161	166,161	185,489
상 품 수 입	232,523	200,084	191,020	225,117	251,285
외 환 보 유 액	106,906	92,921	92,055	96,174	80,250
총 외 채	401,728	395,862	404,890	438,806	476,319
총외채잔액/GDP	43.0	46.1	46.9	52.2	62.7
D.S.R.	19.3	20.5	33.4	34.3	32.2

자료: IMF WEO, OECD, EIU

유럽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전체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이란 등 중동과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해 경색되었던 러시아와의 교역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매개로 관계가 개선되며 증가 추세

- 국가별 교역규모로는 독일이 최대이며,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U\$21억불)가 독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중국과의 교역도 증가,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 확대

\* 매년 95억 m<sup>3</sup>의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2026까지 수입하는 계약 체결

## 외채상환능력

2018년 6월 외환보유고(984억불)는 대외채무(4,500억불) 대비 약 22%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단기외채(1,806억불) 비중도 높은 수준 [IMF]

- 앞으로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외채상환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전체 외채중 민간부분의 외채가 약 80%이나, 해당 외채에 대한 FX 자산은 약 4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Atradius]

## 구조적취약성

### 저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과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 터키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 투자유치 정책은 터키를 '유럽의 공장'으로 불리게 할 정도로 현대차, 포드, 르노,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와 LG전자 등 전기전자 제조 외국기업들이 생산공장을 터키에 두고 있음
- 대부분의 터키 소재 외국 제조기업은 자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터키의 생산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임
-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원유는 주로 이란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과 환율에 취약하고 높은 에너지 수입비중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임
-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규모가 터키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임. 전력수요의 약 40%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17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5%, '18년은 환율상승 등으로 7%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성장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위치와 풍부한 노동력 보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 중동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 가능. 러시아와 중동의 유럽행 천연가스관이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
- 유럽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18년 기준 81.9백만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함

## 정책성과

### 건국 100주년(2023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30' 계획을 시행 중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

- GDP 2조 달러\*, 국민소득 2만 5,000 달러\*\*,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등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3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15%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쌍둥이 적자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혁 없이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임

\* GDP(억 달러): 8,412('17<sup>e</sup>) → 10,190('20<sup>f</sup>) → 11,321('22<sup>f</sup>)

\*\* 1인당 GDP(달러): 10,434('17<sup>e</sup>) → 12,282('20<sup>f</sup>) → 13,489('22<sup>f</sup>)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정치안정

2017년 대통령제로 개헌하였고 2018년 조기 대선\*을 통해 2023년까지 집권기간을 연장

\* 중임기간중 조기 선거를 실시하면 추가 5년의 임기가 주어지도록 개헌

- 대선과 함께 실시된 의회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연정파트너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이 각각 290석과 49석을 차지해 과반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 가능

## 사회안정

2년만에 국가비상사태 해제, 테러 감시활동이 강화되며 치안 안정화

- 2016년 7월 20일 쿠데타 시도 5일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7차례 연장되어 오다가 2018년 7월 18일 해제
- 2017년 1월 나이트클럽 총격 이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 IS 추정 세력의 이스탄불 쇼핑몰 폭탄테러 시도도 사전 적발하는 등 對 테러감시활동 강화로 치안 안정화

## 국제관계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경제제재 등 갈등상황이나 EU와는 상호협력관계, 이란·러시아·중국과는 관계 개선

- 터키 체류 미국인 브런스 목사의 가택연금에 대한 보복 조치로 터키 법무·내무장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가해지는 등 미국과의 갈등상황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란·러시아·중국과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무역갈등 등을 매개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 터키는 교역에서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입장에서도 터키가 시리아 난민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상호 필요한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실적은 미미한 수준

- 2018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對 터키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66억달러, 중장기 285억 달러로 총 351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원금은 15.6백만 달러로 전체의 0.04%에 불과함.
- 2018년 3월말 기준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2018.02)	C1(2017.02)
OECD	5등급(2018.06)	4등급(2018.01)
Moody's	Ba3(2018.08)	Ba2 (2018.03)
Fitch	BB(2018.07)	BB+(2017.01)

### OECD 한단계 국가등급 하향,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등급 하향(S&P, Moody's 두단계 하향, Fitch는 한단계 하향)

- 악화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누적 적자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2018년중 OECD와 Fitch는 한 단계, S&P와 Moody's는 두 단계 하향한 관계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

## 재평가 관련 현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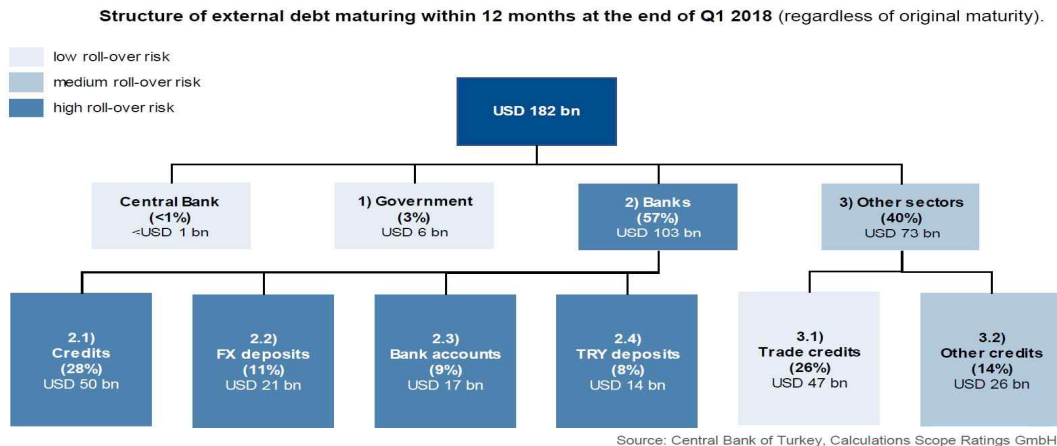
### 리라화, 연초 대비 약 62% 평가절하, 환율의 하향 안정화 필요하나 가능성 낮아

- 8.27자 기준 미 달러당 6.16리라, 8월 한때 미 달러당 7.24리라까지 상승하는 등 환율 불안 지속
- 가택연금중인 미국인 목사 브런슨의 신병처리가 해결의 실마리이나 터키의 강경대응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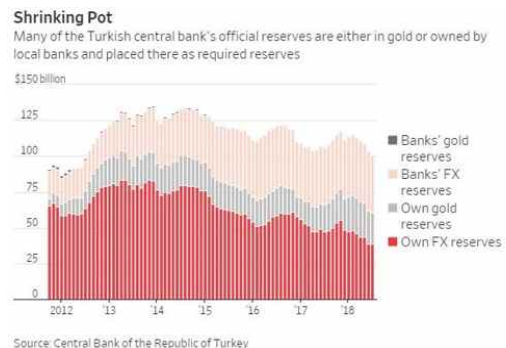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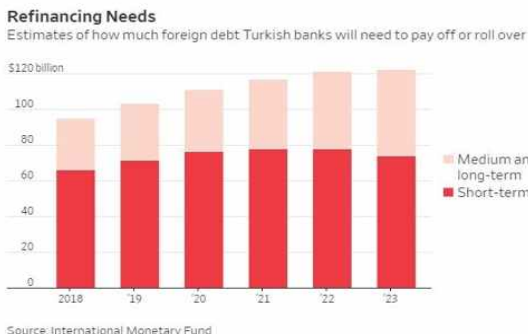
### 단기대외채무 대비 낮은 외환보유고와 민간 부문의 높은 대외채무 비중은 외환위기 심화가능성을 높임

- 미국의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자금흐름이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 흐름이 전환됨에 따라 단기외채 연장(roll-over)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터키의 만기 1년 이하 외채 구조(1/4분기 기준)>



- 터키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이 상당수 금(약 20% 추정)이거나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최근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더 적을 가능성이 큼



- 지난 8.17자로 S&P와 Moody's가 터키의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한단계 낮춰 금융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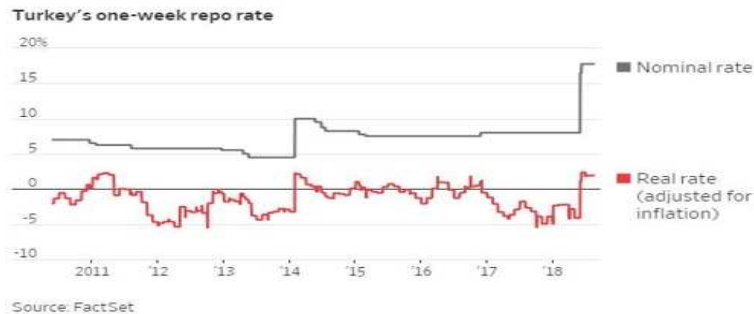


## 재평가 관련 현안 검토

앞으로 터키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금리인상, 자본통제의 방식이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인상 폭은 현재 기준금리 17.75%에서 **10% 정도 인상한 27~28% 수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 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채택가능한 정책수단이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인상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터키 중앙은행이 이에 반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지 않음

<터키의 명목금리 VS 실질금리>



- 1990년대 태국과 2008년 아이슬란드가 사용한 자본통제 방식은 외채 의존도가 높은 터키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 채택

현재 터키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

- 시리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9월 7일 러시아·이란·터키 3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담 의제로 미국에 대항하는 3국의 연대 강화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터키의 외채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전망) 향후 터키 국영은행 Halk bank의 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벌금이 확정되는 시기와 규모 그리고 터키의 이란 제재 불참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이행되는 경우,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터키는 이란의 천연가스를 이란 제재기간 동안 수입하였으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란에 천연가스 대금으로 금을 지급하였는데 국영은행인 Halk bank가 외환을 금으로 전환하여 이란과 거래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2017년 9월 전 경제장관과 Halk bank 은행장 등 9명이 기소되었으며 Halk bank 부행장 아틸라는 미국에 구속수감된 상황으로 **현재 수십억불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원유·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는 11월 5일을 기점으로 실제 제재 불이행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브런슨 목사의 석방과 이란제재 동참 등 터키가 미국의 방침에 응하지 않으면 경제제재 등 현 위기상황을 풀 수 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터키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터키는 2017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7.3%)을 시현하였고, 2018년에는 3~4%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 2018년 터키 체류 미국인 목사 브런슨의 석방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으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주요 수출품(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음
- 2018년 6월 외환보유고(984억불)는 대외채무(4,500억불) 대비 약 22%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단기외채(1,806억불) 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외채상환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가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악화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누적 적자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2018년중 OECD와 Fitch는 한단계, S&P와 Moody's는 두단계 하향한 관계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
- 위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은 종전 C1에서 한등급 하향한 **C2등급을 부여**하고자 하며,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등급을 추가적으로 하향**할 예정임

## 동유럽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OECD 5등급) (수은 C2)	(OECD 등급 없음) (수은 D2)	(OECD 5등급) (수은 C3)	(OECD 5등급) (수은 C1)
GDP 규모(억 달러)	7,602	2,216	123	579
1인당 GDP(달러)	9,286	20,567	5,916	13,958
경제성장률(%)	4.4	2.6	3.2	2.7
소비자물가상승률(%)	15.4	1.3	2.6	1.2
재정수지/GDP(%)	-3.8	-1.1	-3.6	-1.0
경상수지/GDP(%)	-6.5	-1.8	-3.3	2.6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3.3	N.A	N.A	N.A
외채상환액/총수출(%)	199.8	N.A	5.2	23.2
총외채잔액/GDP(%)	62.7	N.A	71.4	86.3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48.3	N.A	N.A	N.A